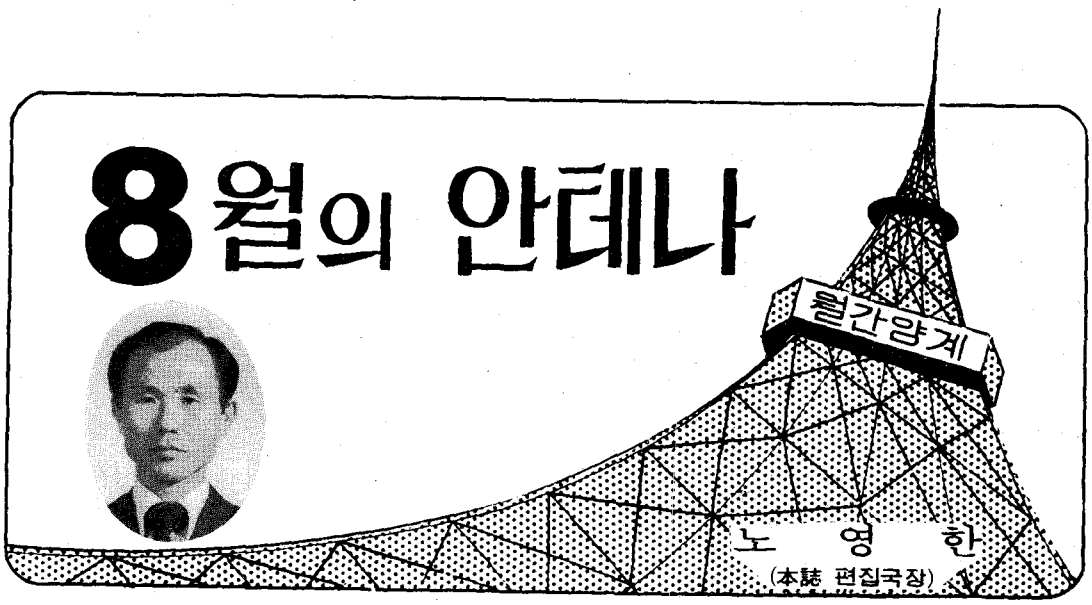
8월의 안테나



노 영 한
(本誌 편집국장)

다시 소를 기르려면 외양간을 고쳐야

우리나라의 전래되는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속담이고 대개 몇 번쯤은 실감 해 본 속담이기도 하다.

신문을 보아도 많은 하는 일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어서 이제는 생활화 된 속담이기도 하다.

우리 양계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일이 너무도 많다.

뉴캣슬등 예방접종과 방역을 철저히 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나, 값싼 사료만을 찾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소비를 생각지 않는 무모한 생산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는 79년 소를 잃어 버렸으며 79년 말의 경험은 뼈를 에이는 아픔을 가져 왔었다.

79년 소잃고 80년 초에 외양간 고치자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있었고 우선 외양간을 어떻게 고칠것인가에 대한 건축설계가 본지 1월 호에 게재된 양계산업 안정대책 (127p) 이라고 볼 수 있다.

소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현명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소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슬기만 이라도 가졌으면 하는것이 현실이다.

불경기가 오면 안정화 대책이 논의되고, 소비확대, 생산조절, 유통구조 개선이 의례히 논의 되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모두가 백지화 되어 버린다.

양계산업이(관련 축산업계도 대개 그렇지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생산 유통 소비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느 부분

에서는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 다음의 4 가지 유형의 양계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첫째 외양간 고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현실에 만족하고 가장 좋은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는 외양간을 고칠 염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셋째 외양간을 고칠 필요는 느끼지만 누가 고쳐 주기를 바라는 사람과,

넷째 외양간을 고치되 무모할이 만큼 무식한 불도저형으로 고치나 마나하게, 또는 안고치는만 못하게 고치는 경우이다.

지난날의 많은 시행착오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다행히 본회는 앞으로 소를 잃지 않기 위하여 우선 할 수 있는것부터 조금씩 외양간을 수리하기로 하였다.

작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소비자 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대상도 크게 넓히기로 하였다.

이 사업에는 USFGC (미국 사료 곡물 협회 한국지부) ASA (미국 대두협회) KFA (한국 사료협회) 등이 후원 하고 KFDC (한국식생활 개발연구회)가 협조한다.

한사람의 힘보다 유관 업계가 힘을 합해서 정책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부분에서 소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지금 우리 업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유와 계란을 겯들여 먹기

79년은 양돈업계가 주도하여 전체적인 축산 업계에 불황을 가져오더니 금년들어 분유의 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분유의 재고는 7,900여톤에 달하고 있어 유가공업체의 자금압박은 한계에 달했다고 한다.

국내 유명일간지가 사설 또는 경제면의 머릿 기사로 다루고 있는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비단 낙농업계 뿐만 아니라 양계업계나 관련 산업계도 어려운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것 같다. 다만 양계업계의 어려움이 매스콤을 통해 일반 국민에 덜 알려졌을 뿐이다.

과거 10년간 다른 축산물들의 소비가 급신장 하는 반면에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91 p 참고).

닭고기의 경우 1969년 전체육류 소비량의 28.0% 에서 79년에는 21.2%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도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닭고기를 먹도록 하지 않으면 소

비신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농수산부는 18일 앞으로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현재 시범 우유급식 학교를 제외한 국민학교에 유가공업체에서 구내매점을 설치하고 공장도 가격으로 희망자에 한해 판매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 전국에는 461개의 우유 시범급식 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에는 공장도 가격보다 11%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여 주기로 문교부와 합의가 되었으며 그외 국민학교에는 공장도 가격으로 유가공 업체에서 구내매점을 통해 희망자에게 티켓을 발급하여 팔게 된다.

이번 농수산부의 구상을 크게 환영하며 다만 구내매점이 우유단일 품목에 한하여 너무 단조로운 것 보다, 계란이나 최근 붐을 이르키는 후라이드 치킨 등을 곁드려 쇠고기 위주의 소비성향을 값싼 닭고기로 자라나는 아동부터 바꿔나가야 될 것이다.

제 2세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후라이드치킨이나 계란에 우유를 곁드리는 것이 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배합사료 가격인상 충격을 가볍게

한화의 미화($)에 대한 환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24일 한국은행이 고시한 집중기준율을 608원 70전으로 지난 2월 27일 변동환율제를 실시 하기전 580원에 비하여 4개월 만에 28원 80전이 올라 약 5%가 상승한 셈이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전신환 매도율은 6백 11원이 되었는데 이는 곧 양계 산업의 생산원자재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런폭으로 생산비가 상승 하는 것으로 알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카나다의 한발등으로 사료곡물시세도 상승추세에 있어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될 소인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업계의 충격을 가능한한 버티는데 까지 버티다가 한번에 모아 큰 충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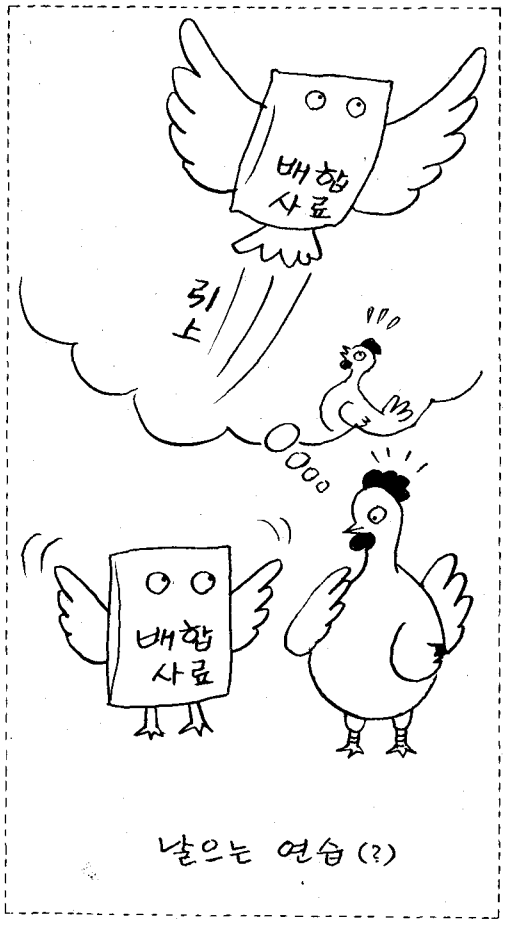
금년 1월의 일시에 사료가격의 30%인상조치 같은것을 들 수 있다.

지금 또 환차와 사료곡물, 대두박등 부원료의 가격인상등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얼마나 더 인상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큰 폭으로 인상될 것만은 거의 틀림이 없다.

이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업계가 어떻게 소화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작업이 있어야겠다.

지금까지의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둑을 막아 놓았다가 물의 힘에 못이겨 뚝이 터지게 하는 방법과, 서서히 물을 흘려보내 한번에 홍수가 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등이 앞으로 닥쳐올 강수량을 예측하여 정하여 져야 하겠다.

이런 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축진의 사료 안정기금을 적절히 운용하여 문제가 생길때마다 적은것은 그때그때 충격을 업계가 흡수함으로써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바란다.



정장관 농수산 유관업체에 친서발송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은 최근의 서정쇄신과 관련하여 농수산 유관기업체 임직원 에게 친서를 발송하였는데 여기에 그 전문을 게제한다.

"본인은 우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발전에 직간접적인 기여를 하고 계신 농수산 유관기업계에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읍니다.

농수산유관기업이 일차적으로 기업이윤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업종의 기업과 다른점이 없겠으나 기업활동의 주된 영역이 농수산분야라는 점에서 전국의 농어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농수산유관기업체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농어촌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75,000 농수산 공직자들이 숱한 불만을 유보한채 묵묵히 증산에만 열중하고 있는 전체 농어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정직한 의식의 개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유관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안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분야에서 너무도 많은 시련에 직면해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기강과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총화의 기본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일대쇄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연방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작업도 바로 쇄신을 위한 일대 결단인 만큼 농수산유관기업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마음 가짐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우리 농어촌은 70년대의 새마을 운동과 녹색혁명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발전적 번화를 이룩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동안 농어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됨으로써 농어민의 의욕이 감안되고 여러가지 불만이 축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농수산 공직자들은 우리 농어촌이 바로 나라의 기본이며 경제의 원천임을 알아 의욕과 의지의 역사를 엮어나가는 광장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 진실된 자세를 가다듬어 나간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읍니다.

1,200만 농어민을 대할때 친부모나 친 동기간을 대하듯 곤경하고 친절하며 항상 농어민편에 서서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가다듬어 부정과 부조리에는 결코 물들지 않는다는 결연한 각오아래 전체 농수산 공직자들은 결코 분수에 맞지않는 사치를 탐하거나 사를 위해 공을 망각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여 이와 같은 우리의 자세가 어떤 외부의 유감에 의해 퇴색되거나 변질될때 전체 농어민과의 사이에는 불신이 싹트고 나아가 농어촌의 건실한 발전과 향상은 그만큼 후퇴할 것임에 틀림 없읍니다.

지금 온 국민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특히 지도급인사와 공직자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의 각성과 슬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모두 어느길이 과연 영원한 민족과 조국에 유익한지를 크게 깨달아 서정쇄신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손을 잡아 이끄는 바 입니다.

귀 업체에 旭日昇天의 번영이 계속 되기를 빕니다.